

# 광주시, ‘중증장애인 360도 채움 프로젝트’ 추진

주거·이동·건강권 강화 중점  
자체 기획·맞춤형 복지 실현  
최중증 가정에 안전시설 설치  
구급차 이용·건강검진 지원도

광주시가 효과적인 중증장애인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섰다.

광주시는 이달부터 중증장애인의 주거·이동·건강권 강화를 위한 ‘360도 채움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장애인복지 실현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으로, 장애인복지기금 1억원을 활용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정 안전시설물 설치 지원(세이프 홈) △와상 근육장애인

구급차 이용료 지원 △건강검진 코디네이터 지원 등 3개의 맞춤형 장애인 복지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광주시가 직접 기획해 추진하는 모델이다. 실효성 중심의 정책 추진을 통해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광주시의 의지가 반영됐다.

먼저 ‘세이프홈 지원사업’은 사업비 5600만원을 투입,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정에 완충매트, 방충망, 유리강화필름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350만원까지 총 15가구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이 사업으로 벽·창문 등에 머리를 찰거나 자해·소란 등 도전행동이 심

한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보호자의 돌봄 부담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한시 사업인 ‘와상 근육장애인 구급차 이용료 지원’은 복지기금 1600만원을 들여 사설 구급차 이용료를 연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에 새빛콜 차량 이용이 어려운 와상 근육장애인의 병원 이동 불편을 해소한다.

와상 근육장애인은 진행성 질환으로 인해 주기적인 병원 진료가 필요하지만, 기존 새빛콜 차량은 간이침대 탑재가 불가능하고,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응급상황 대응이 어려워 사설 구급차 이용이 불가피했다.

광주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와상 근육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내년부터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장애인 건강검진 코디네이터 지원’은 중증장애인의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800만원을 투입한다.

2022년 기준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은 63.5%로, 비장애인(75.5%)에 비해 12%p 낮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52%에 불과해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이는 낮은 의료수가, 의료장비·보조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일부 의료기관에서 중증장애인 건강검진을 꺼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지역 최초 보건복지부 지정 장애인화건강검진기관인 광산구 ‘우리동네의원’에 전문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건강검진 안내·동행을 지원하고, 장애인화 검진체계 조기 안착을 꾀한다.

박영숙 장애인복지과장은 “기존 틀을 넘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더 단단하고 촘촘하게 시민의 삶을 돌보는 것이 시정의 핵심”이라며 “이번 사업은 광주시가 직접 기획·추진하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연계해 현장 중심의 장애인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 전남도, 美 한인 H마트와 ‘K-푸드’ 확산 협력

조지아서 ‘전남 농수산물식품 판촉전’  
미국 관세 장벽 속 수출 확대 박차

전남도가 미국의 강화된 관세정책에 선제 대응하며 북미 최대 한인마트 H마트와 손잡고 ‘전남 농수산물식품 판촉전’을 대대적으로 펼친다. K푸드의 본고장으로서 입지를 굳히고, 수출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전략이다.

전남도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H마트 둘루스점에서 ‘전남 농수산물식품 판촉전’ 오픈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 심상봉 H마트 전무, 이성희 전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채상현 전남식품수출협회 사무국장 등 주요 관계자와 현지 소비자들이 참석했다.

H마트는 미국, 캐나다, 영국 등지에 약 120개 매장을 보유한 북미 최대 규모의 한인 슈퍼마켓 체인이다. 이번 판촉전은 둘루스점을 포함한 조지아주 내 4개 H마트 지점에서 동시에 열리며, 5월1일까지 진행된다. 판촉전에서는 유자차, 김, 홍어, 표고버섯, 한과, 식혜, 나물류 등 전남 대표 인기 품목은 물론, 굴비, 동전육수, 된장국·청국장·비빔밥 밀키트 등 새롭게 선보이는 80여 종의 전남 농수산 가공식품이 현지 소비자와 만난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H마트 둘루스점에서 열린 ‘전남 농수산물식품 판촉전’에서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가 미국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의 2024년 대미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은 1억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3.8% 증가했으며, 2025년 2월 기준 누적 수출액은 25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대비 49.6% 급증하는 등 역대급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김, 과일음료, 배, 유자차, 전통 장류 등이 주력 수출 품목이다.

박창환 경제부지사는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로 식품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전남도는 관세 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수출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이번 조지아주 판촉전에 이어 오는 9월에는 미국 전역의 H마트를 대상으로 대규모 전남 농수산물식품 특별전도 준비 중이다. **오지현 기자**

## 전남도, 불법 김 양식시설 단속 강화

고흥·완도·진도 집중 단속

전남도가 김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불법 김 양식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정비와 단속에 나선다.

전남도는 지난 16일 전남해양수산과학원에서 ‘2026년산 김 불법 양식시설 사전 차단 킷오프 회의’를 열고, 시군별 김 양식장 정비계획과 단속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와 12개 시군의 양식 어장 정비 및 불법어업 지도·단속 담당자 25명이 참석해 어장질서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남의 김 양식장에서 불법 시설이 적발된 건수는 총 122건으로, △2023년 42건 △2024년 41건 △2025년(4월 기준) 39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흥군, 완도군, 진도군에서만 전체 적발 건수의 약 79%에 해당하는 96건이 집중돼, 주요

생산지를 중심으로 불법 양식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불법 시설 확산은 김 생산 구조 왜곡과 품질 저하로 이어져 가격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25년산 전남의 김 누적 생산량은 4월9일 기준 48만9585톤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지만, 가격은 kg당 1567원으로 전년 동기(1937원)보다 19%가량 하락했다. 생산은 늘었지만 수익은 줄어드는 구조다.

전남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생산 시군의 우심 해역을 중심으로 김 양식시설 설치 어업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7월 말부터는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위주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특히 김 양식장에 맞 시설이 본격 설치되기 시작하는 시기를 집중 단속 시기로 설정해 불법 시설의 완전 차단에 나선다. **오지현 기자**



동구 스마트 그늘막 점검

광주 동구청 주민안전담당관 자연재난팀원들이 18일 동구 전일빌딩 245 건물목 신호등 앞에서 5월초 운영 예정인 스마트 그늘막 작동을 점검하고 있다. 스마트 그늘막은 사물인터넷(IOT)과 태양광 기술을 접목한 시스템 작동으로 펄고 접기가 가능하며 햇빛의 세기, 풍속 등에 따라 자동으로 펄고 접히도록 설정되어 있다. **김양배 기자**

광주 동구청 주민안전담당관 자연재난팀원들이 18일 동구 전일빌딩 245 건물목 신호등 앞에서 5월초 운영 예정인 스마트 그늘막 작동을 점검하고 있다. 스마트 그늘막은 사물인터넷(IOT)과 태양광 기술을 접목한 시스템 작동으로 펄고 접기가 가능하며 햇빛의 세기, 풍속 등에 따라 자동으로 펄고 접히도록 설정되어 있다. **김양배 기자**

## “원도심의 매력 만끽하세요”…광주 동구 ‘국가유산 야행’

25일부터 이틀간…참여자 모집  
가이드 투어 등 6가지 프로그램

광주 동구 원도심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야간 여행이 열린다.

동구는 오는 25일부터 양일간 5·18민주광장과 서석초등학교 등 국가유산 일원에서 열리는 ‘광주 국가유산 야행’ 프로그램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유료 프로그램 3종과 무료 프로그램 3종 등 총 6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이번 야행 참여자 모집은 오는 24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유료 프로그램은 △‘무등무명(無等無名) 지식 가이드 투어’ △‘힌츠펠터 기록학교’ △‘분청사기 마상배(馬上杯) 만들기’가 마련돼 있으며, 무료 프로그램

으로는 △‘카페 동인(東人)’ △‘꼬마 의병단’ △‘소학교 가는 날’이 준비돼 있다.

특히 올해 처음 선보이는 ‘무등무명 지식 가이드 투어’는 전문 해설사의 안내로 국가유산을 깊이 있게 둘러보는 테마형 투어로 기대를 모으며, ‘힌츠펠터 기록학교’는 ‘오일 광주’를 기록했던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펠터의 시선을 어린이의 눈으로 재현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또한 ‘분청사기 마상배(馬上杯) 만들기’는 말 위에서 전쟁의 승리를 기원할 때 높이 들어 올리거나 잔치나 제사에 쓰이기도 했던 마상배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차(茶)를 마시며 역사 속 광주 여성들을 만날 수 있는 관객참여형 연극 ‘카페 동인(東人)’도 펼쳐진다.

어린이들이 의병 복장을 갖추고 광주를

성을 지키는 의병이 되어 보는 ‘꼬마 의병단’, 어린이 국가유산 해설사를 통해 서석초등학교와 광주학생독립운동 이야기를 듣는 ‘소학교 가는 날’ 등도 열린다.

이와 함께 숙박, 식사(조·석식), 광주극장 영화관람권 또는 굿즈 교환권이 포함된 ‘야행 숙박패키지’ 참여자도 별도로 모집하고 있다.

참여 신청은 광주아파트스 또는 광주 국가유산 야행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 국가유산 야행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국가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야간 경관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광주 국가유산 야행’에 많은 시민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 광주도시공사, 신입사원 안전체험관 체험교육

광주도시공사는 18일 전복 임실에 위치한 119 안전체험관에서 신입사원 28명을 대상으로 재난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교육은 화재 및 지진, 태풍,

항공기 사고 등 다양한 재난 상황을 체험하며 실질적인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교육에 참여하는 신입사원들은 4D 재난 영상을 비롯해 유형별 위기탈출 체험

을 통한 체계적인 재난 대응 훈련을 받게 된다. 이러한 체험형 교육은 이론을 넘어 실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광주도시공사는 이번 체험교육을 통해 신입사원의 안전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조직 전반에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최권범 기자**